장애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하겠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김문철부위원장과 나눈 이야기 *

기 자: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창립된지 16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김 문 철: 장애자보호사업은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건강한 사람과 꼭같이 보장하여 그들이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사업이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진행되여온것으로서 력사가 매우 오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6월에 발표하신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제18조)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나라에서는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한 불구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는것을 시종일관한 시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돌볼 사람이 없는 불구자들의 생활조건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데 대한 시책에 따라 1961년 10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및 양생원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전국도처에 양생원들이 설치되였으며 그 이듬해 6월 《양로원, 양생

원중요물자공급기준》에 의하여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자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일체 생활필수품들과 생활조건이 보장되게 되였다.

장애자보호사업을 위한 회복치료체계가 정연히 세워져있고 여러곳에 영예군인들과 장애자들을 위한 료양소들이 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은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있다.

기 자: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가.

김 문 철: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장애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전신은 1998년 7월 29일 보건성 인구연구소(당시)산하에 조직된 조선불구자지원협회이다. 그후 2003년 10월 조선불구자지원협회가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 2005년 7월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로 발전하였다.

장애방지 및 기능회복은 련맹의 변함없는 주요활동방향이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에서는 《장애자의 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리용하여 장애자사업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조직진행하고있으며 6월 18일 《민족장애자의 날》과 12월 3일 《국제장애자의 날》 기념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기 자: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의 활동은 장애자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고 본다.

김 문 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등 3개 장에 54조로 구성되여있다. 그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7호에 의하여 장애자보호법이 새롭게 수정보충되였다.

여기에서는 장애자의 체육과 문화정서생활조직을 비롯한 문화생활분야,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조직과 로동시간을 비롯한 로동생활분야, 장애자보호사업조건과 생활환경보장, 장애자의 후견임무 등 이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분야를 수정보충하였다.

하여 장애자보호문제가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돌보는 인간존중사회의 우월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장애자들에게 정신육체적회복과 교육, 체육, 예술활동을 비롯한 물질문화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기 자: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여러 국제기구들과 다양한 협력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고 보는데.

김 문 철: 그렇다. 련맹에서는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통하여 장애자보호시책이 더 큰 은을 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2012년 2월 헬싱키에서 세계롱인련맹과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사이에 호상협력에 관한 량해문을 체결하고 세계롱인련맹과 4개년협조계획을 작성하여 평양에 세계롱인련맹출장소를 개설운영하고있다.

련맹에서는 장애자사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려는 해외동포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 조선장애자원아기금과 국제푸른나무재단이 공동설립한 민족장애인원아지원협력사무소의 공동운영이 활성화되여감에 따라 미국에 있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작은 나눔》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인사들이 조국의 장애자, 원아들을 위한 협력사업에 참가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장애자보호사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기구들과 해내외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과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보다 강화해나가겠다.

기 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진행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라선시에서 진행되였다.

18일 개막식이 있었다.

개막식에는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조정호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라선시내 근로자들과 여러 나라의 대표들, 출품자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있는 외국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개막연설에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자주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동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흥하려는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경제업체들, 무역회사들의 공통된 지향과 성심성의의 노력에 의하여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열리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전시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 이딸리아, 타이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출품한 70여종에 6만 4 000여점의 전기전자제품과 경공업제품, 식료일용 및 의약품들, 륜전기재 등이 전시되였다.

전시회기간 여러 나라의 회사들과 인사들사이의 폭넓고도 다방면적인 과학기술교류, 무역거래 등이 있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투자토론회도 있었다.

본사가자

세계바둑프로그람시장을 휩쓰는 《은성》

조선의 콤퓨터바둑프로그람이 세계 으뜸의 명품으로 되였다.

그 상표가 바로 《은성》콤퓨터바둑프로그람이다. 바둑이건 장기건 인공지능유희제품에 한해서는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은성》콤퓨터바둑프로그람을 찾는다.

조선의 콤퓨터바둑프로그람 《은성》이 세계바둑프로그람의 《왕좌》를 차지한것은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1998년이였다.

이해에 진행된 제4차 호스트컵바둑프로그람세계선수권대회에서 조선의 바둑프로그람은 련전련승하였는데 호스트컵바둑프로그람세계선수권대회이후에 진행된 세계콤퓨터바둑도전자대회에서도 련속 우승하여 7련승을 기록하였다.

그후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적으로 보다 고급한 바둑프로그람들이 개발되여 세계에서 제노라고하는 바둑프로그람들과의 경기가 진행되였다. 여기에서도 승리의 월계관을 쥔것은 《은성》콤퓨터바둑프로그람이였다.

이 나날 《은성》의 지위는 더 공고해지고 명성은 더 높아졌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제품에 한해서는 《은성》이라는 상표만 보고도 의심하지 않고 구매한다. 《은성》이 세계가 그 품질을 인정하는 명품이 된것이다.

올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매싸이트 아마존이 공개한 지능제품판매시장조사자료에 의하면 《은성》14가 판매량이나 품질에서 여전히 세계 제1위였다. 이것은 벌써 여러해동안 유지되고있는 순위이다.

◆《은성》에 대한 구매자들의 말.

《나는 사실 〈은성〉의 위력에 도전해볼 생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강하다고 하는 Zenith시간제한 15s로 대국시켰다. 결과는 내가 바라던대로가 아니라 〈은성〉의 승리로 끝났다. 마치 사람이 바둑을 하는듯 한 느낌을 받았다.》

《세계바둑프로그람의 거물이라고 하는 Zenith는 최근년간 부지런히 〈은성〉을 따라잡느라 애를 쓰지만 CPU를 36개나 리용하면서도 불과 6개의 CPU를 리용하는 〈은성〉을 이기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신화라고밖에 말할수 없는 현상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바둑프로그람개발은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는 집단으로 발전하였다. 《은성》 개발자들은 오늘도 래일도 《은성》과 같은 신용과 권위를 가진 정보기술제품들로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속담

교양, 수양 (1)

《보석도 닦아야 빛이 난다.》

사람은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해야 사람다운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남의 자식 흉보지 말고 내 자식 가르치라.》

남의 자식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식에게 그런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가르치라는 말

《보는바가 크면 이루는바도 크다.》

사물현상을 고찰하는바가 넓어야 더 큰 결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뜻으로 모든것을 넓은 안목을 가지고 크게 볼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계절에 따르는 잠시간

사람들은 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정신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것은 모든 계절에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건강에 제일 유익한것도 아니다.

즉 봄과 여름 두 계절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가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한다.

이 원칙에는 과학적근거가 있다.

봄과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때문에 일찍 자면 잠들기 힘들거나 잘 잘수 없으며 늦게 자야 쉽게 잠들수 있다.

또한 이 계절에 해가 일찍 뜨므로 일찍 일어나게 되며 따라서 사람은 자연적으로 생활에 리용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가을이면 날씨가 서늘하고 날이 빨리 어두워지기때문에 일찍 자면 밤의 랭기를 받지 않으며 날씨가 서늘하고 활동하기에 제일 알맞는 계절이므로 일찍 일어나야 충분히 리용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겨울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찬바람을 맞기 쉽기때문에 해가 떠오르고 날씨가 따스해질 때 일어나서 활동하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양념감의 어울림

여러가지 양념을 같이 쓸 때 그의 어울림에 따라 양념감이 약하게 느껴질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더 강하게 느껴질수도 있다.

후추가루를 넣은 음식에 고추가루를 같이 쓰면 맛과 냄새가 잘 어울리지 않을뿐 아니라 후추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추가루를 쓸 때 후추가루를 넉넉히 넣거나 후추가루의 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추가루를 넣지 않는것이 좋다.

맛내기는 0.9~1%정도의 소금물에 풀었을 때 감칠맛이 제일 잘 난다.

깨가루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 난다.

본사기자

처음으로 밝혀진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기술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와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 온천군 원읍고급중학교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온천군에서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유적을 처음으로 조사발굴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소금생산력사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연구집단은 2012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온천군 원읍지구에서 유적조사 및 발굴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원읍로동자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3㎞정도 떨어진 논판가운데의 나지막한 둔덕에서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시설로 볼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찾아냈다.

유적은 크게 두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돌과 벽돌로 축조된 구조물이 발견되였다.

이 구조물은 아궁시설과 연소실, 내굴길시설로 이루어졌다.

아궁시설에는 아궁구멍과 그 량옆에 두개의 재처리용 구뎅이들이 있다.

돌로 네 벽을 축조한 연소실의 바닥은 돌과 석회를 섞어 다진것이며 그밑에서 센 열을 받은 불그스레한 흙층이 발견되였다.

연소실의 뒤부분에는 연기가 빠지는 내굴길시설이 있는데 그 중간부분에 원형의 그릇을 올려놓을수 있게 내굴길벽을 깎아내여 만든 공간이 있다.

또한 검은색의 재가 두텁게 깔린 웅뎅이시설을 찾아냈다. 이 웅뎅이는 바다물을 끌어들일수 있는 도랑과 련결되여있고 그 중심에 돌을 일정한 높이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다.

여러가지 종류의 질그릇, 벽돌, 쇠로 만든 평가마쪼각, 녹아붙은 쇠덩어리, 짐승뼈와 뿔 등 많은 유물들도 발견되였다.

새로 발굴된 유적은 고구려시기의 바다소금생산유적이라는것이 판명되였다.

질그릇들과 벽돌들은 4세기 중엽에 해당한것으로 고증되였다.

유적주변 지층의 염도가 매우 높고 두터운 재층이 깔려있으며 바다물을 끌어들이는 도랑이 형성된것은 이 유적이 당시에 바다물로부터 소금을 생산하던 시설이였다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게 하여준다.

연구집단은 이러한 유적과 유물들을 통하여 당시에 웅뎅이시설에서 식물의 재를 리용하여 바다물의 염도를 높이고 그것을 쇠가마에서 끓이는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금생산과 관련한 유적이 발굴되고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기술의 면모가 밝혀짐으로써 당시 우리 민족문화의 높은 발전수준과 독자성이 더욱 뚜렷이 실증되였다.

본사기자

온천군에서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유적 발굴

사화

불목하니 (1)

글 리 빈, 그림 김 윤 일

깎아지른듯 가파로운 아사봉 중턱까지 올라가서야 해묵은 돌버섯 한줌을 겨우 걷어쥔 양서방은 월정사를 향하여 급히 되돌아섰다.

무릎을 넘는 눈때문에 힘에 겨웠다. 미끄러지고 딩굴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한탄이 새여나왔다.

《이게 다 늙은탓이야, 쉰줄도 훨씬 지났으니…》

지금 사찰에서는 예순을 넘긴 로승들 셋이 열병에 걸려 신음하고있었다. 해묵은 돌버섯은 그들의 병치료에 쓸 약재였다.

젊은 승려 둘은 겨울나이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동냥길을 떠난지 벌써 달포가 썩 지났건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있다. 흉년이여서 낟알 한되박 얻기가 헐치 않을것이였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사찰에 남은 사람들가운데서 성한 사람은 저 하나뿐인 양서방이 병인들을 구완하고있는것이다.

그의 집은 사찰에서 동쪽인 안악방향으로 이십여리밖의 룡연마을에 있었다. 마을앞에는 활 두어바탕 넓이의 큰 못이 펼쳐져있다. 옛날이 못에서 룡이 날아오른적이 있었다 하여 마을에 《룡연》이라는 이름이 붙은것이라고 유래가 전해오고있다.

양서방네 집안은 조상대대로 월정사에서 불목하니노릇을 하여왔다.

불목하니란 절에서 밥을 짓고 불을 때며 물을 긷고 청소를 하는 속인을 말한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러해왔듯 양서방은 한달에 그저 두세번 집에 갔다올뿐 나날의 거의 전부를 월정사에서 살았다. 사찰은 양서방에게 있어 다른 또 하나의 가정이였다.

…

사찰문안에 들어서던 그는 와뜰 놀랐다.

부처를 모신 본당인 극락보전의 한쪽 문이 뚝 떨어져 퇴돌아래에 구겨박혀있고 마당 왼켠의 수월당(승려들과 손님들이 거처하는 집)토방우에는 늙은 승려들 셋이 쓰러져있지 않는가!

수월당으로 황급히 달려간 양서방이 승려들을 일으켜앉혔으나 셋은 다 하나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로 픽픽 엎어졌다. 양서방은 이들이 죽은것만 같아 더럭 겁이 났다. 사찰안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는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사방으로 구원을 찾는 눈길이 허둥거렸다. 얼마만큼 지나서 주지가 반쯤 눈을 떴다감으며 입술을 움직거렸다.

《주지님!》

양서방은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얼결에 그의 머리를 자기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주지는 눈을 감은채로 간신히 말마디를 이어가며 이런 사연을 전하였다.

양서방이 아사봉으로 떠난 뒤 얼마쯤 지나서 왜놈헌병 다섯놈이 달려들었다. 놈들은 승려들에게 여기에서 금산포(은률)가 몇리나 되는가, 그리로 가는 길이 어디로 나있는가, 금산포에서 남포까지는 또 몇리인가, 승려들은 모두 몇인데 지금 다 있는가, 치성드리러 와있는 속인들은 없는가를 시시콜콜히 캐물었다.

놈들은 이런 질문을 꽤 잘 번지였다. 이 땅을 통채로 삼키려고 날뛰는 놈들이라 일부러 우리 말을 익힌 모양이였다. 착한 승려들은 그 놈들의 물음에 곧이곧대로 정직하게 대답해주었다. 나중에 놈들은 부처의 이마에 순금으로 장식한 백호(일명 《기미》라고 함.)를 내놓으라고 강박하였다.

승려들이 무섭게 쏘아볼뿐 끄떡하지 않자 놈들은 부처에게 달려들어 총창으로 백호를 파내려고 덤벼쳤다.

승려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놈들의 총창앞에 가슴을 내대였다. 악에 받친 놈들은 그들을 총탁으로 후려쳐서 쓰러뜨린 다음 머리를 마구 짓밟고 걷어찼다. 이어서 야수들은 백호를 뽑아가지고 도망을 쳤다. 승려들은 간신히 수월당 토방까지 기여와서 정신을 잃고말았다.…

주지는 끝으로 당부하였다.

《…이사람 양서방, 나는 왜놈들이 사찰뒤로 빠지는것까지 보고는 이렇게… 금산포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고 또 뒤산으로 오른걸 보면 놈들이 금산포로 간것이 틀림없네.

양서방, 어떻게 하든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놈들한테서 그 백호를 뺏어오라구. 그 백호가 어떤것인가 말이네. 우리 단군성왕님의 상징

을 감히 그따위 섬오랑캐놈들이 더럽히다니… 어, 어서…》

늙은 주지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양서방의 가슴을 떠밀었다.

(!)

양서방은 이가 갈렸다. 당장 달려가서 놈들에게 도끼탕을 안기고 백호를 찾아오고싶었으나 추운 날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늙은 승려들이 걱정되여 선뜻 떠날수가 없었다.

(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잘못되고말겠는데…)

그의 속마음을 짐작했던지 주지는 독촉하는듯 또다시 떨리는 손으로 그를 떠밀었다.

급기야 벌떡 일어난 양서방은 늙은이들을 방안으로 안아들여 이불을 덮어준 다음 날이 시퍼런 도끼를 집어들었다. 왜놈헌병놈들과 맞설 무기가 도끼밖에 없기도 하였거니와 일생을 도끼질로 늙은 그여서 그것을 다루기에는 자신이 있었던것이다.

몇놈이 몰켜간 눈우의 발자국이 뒤산 지름길로 뻗었다. 생생하게 찍힌 왜놈들의 발자국을 보느라니 눈에서 불이 일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를 부드득 갈며 부르짖었다.

《이 쪽발이 섬오랑캐놈의 새끼들! 몽땅 도끼로 묵사발을 만들어놓을테다!》

있는 힘을 다해 놈들의 발자취를 따라 달리는 그의 머리속에서는 놈들의 악랄한 만행들이 꼬리를 물고 뚜렷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있던 강도 일제는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터지자 당치않게도 《일본거류민보호》를 구실로 우리 나라에 불법침입하였다.

전봉준농민군을 무참하게 탄압한 일제침략군놈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용약 일떠선 의병들을 악착스레 잡아죽이는 한편 다음해인 1895년 10월에는 왕궁에까지 뛰여들어 왕비를 칼탕친 다음 시체를 불태워버리는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 8도 이르는 곳마다에서 매일같이 온갖 범죄를 꺼리낌없이 저지르던 놈들은 끝내 조선봉건왕조정부를 총칼로 위협하여 그 무슨 《을사5조약》이라는 날강도적인것을 강압적으로 날조하고 온 나라 주요지대들에 제놈들의 헌병대를 들여앉혔다.

하여 우리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왜놈무리들이 살판치면서 조선사람들의 목을 조여대였다.

이와 함께 놈들은 조선의 재물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며칠전 안악의 구면선비 하나가 월정사를 찾아왔던 길에 전해준 소식만 보더라도 왜놈헌병 몇놈이 월정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안악3호무덤(고구려 고국원왕의 무덤)을 파헤치다가 주변 농민들의 반격에 부딪쳐 도망쳤다는것이다. 그때 놈들의 총질에 우리 사람 여럿이 상하는 참사가 빚어졌다고 안악선비는 울분을 토했었다.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